

쌍용정유

순발력 있게 경영 어려움 극복한 한해

김 평 길

〈쌍용정유 업무과 대리〉

몇

해가 지나고도 뒤돌아 보면 자꾸 되살아 나는 해가 있는가 하면 해가 바뀌어 단 하루만 지나도 깡그리 잊혀지는 해가 있다. 사람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 지나온 해에 대한 기억은 천차만별이고 뒤돌아 보는 시점에 따라서도 평가에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1. 경험을 기록하는 의미

누구든지 새해를 시작할 때면 그럴듯한 목표를 세우고 굳건한 각오를 다짐한다. 사실 그 목표와 각오가 항상 제대로 달성되고 지켜진다면 애써 기억을 되살릴 필요조차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활동여건은 항상 변하고 주변환경은 언제나 유동적이므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결과를 분석하고 반성하고 남아있는 시간에 대비한다. 그리고 1년 지나가는 시점에서 연초의 목표달성여부를 점검하여 기록하고 향후 본보기로 삼는다. 역사가 되는 것이다.

개인생활의 경우 취향에 따라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고 머리 속으로 되새김만 하기도 하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도 한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 새로운 유기체로 탄생한

조직은 개인과는 구별되며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범위를 좁혀 쌍용정유의 1년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은 비단 쌍용정유만이 아니라 비슷한 모든 조직들의 향후 발전의 방향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쌍용정유는 석유업계와 소비자들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쳤을까. 쌍용정유의 경쟁자와 고객들은 지난 1년의 자취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2. 소비자를 향한 일편단심

우리는 의욕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각오를 다부지게 다지며 자신감 있는 한해의 발걸음을 시작하였다.

우선 B-C유 크래킹센터의 건설 등 신규사업의 성공적인 완결과 안정적인 가동체계를 정착시키고 석유화학부문에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온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범태평양지역에서 최고의 석유제품 공급회사가 되고자 하

었다. 국내에서는 수입품이 도저히 추종할 수 없는 수준으로 품질을 고급화하고 저공해제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민경제와 소비자를 생각하는 경영전략하에서 서비스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고객만족경영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부로 느꼈겠지만 올해 정유산업은 어느해 보다도 어려운 경영환경을 헤쳐나가야 했다.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국내 정유산업의 특성상 환율상승에 따른 손실은 타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했다. 여기에다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전체적인 비용상승은 업친데

답친격으로 정유사의 원가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당초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절한 경영전략의 수립과 실천을 통해 순발력있게 대처하였으며, 무척 힘든 싸움을 잘 이겨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시점에서 내린 결론을 미리 얘기하자면 급변하는 경영환경하에서 소비자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온 소비자중심의 경영전략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 쌍용정유인들은 소비자와 전체 국민의 편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소비자중심의 기업 활동을 전개하여 왔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와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관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3. B-C유 크래킹센터 완공 및 PX건설사업 개시

올 3월에는 석유산업의 저공해화와 고부가가치화 달성의 염원을 안고 야심적으로 추진해온 B-C유 크래킹센터의 1단계공사를 완공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시점에서 내린 결론을
미리 얘기하자면
급변하는 경영환경하에서
소비자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온 소비자중심의
경영전략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내석유수요의 경질화·저유황화 추세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우리 회사는 지난 92년부터 약 1조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B-C유 크래킹 센터의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1차로 6,000억원을 투자한 중질유 수첨분해·탈황시설을 완공한 것이다.

B-C유 분해시설은 하루 4만배럴의 B-C유를 분해하여 주로 등·경유분을 생산하는 시설이며, 특히 B-C유 탈황 시설은 하루 3만 5천배럴의 고유황 B-C유를 처리하여 저유황 B-C유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단일시설(Single Train)규모로는 세계최대의 시설이다. 이 시설의 완공으로 국내 경질유 및 저유황 B-C유의 수급안정은 물론 최근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환경보호를 위한 청정에너지 공급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올해는 석유화학부문의 사업다각화를 위해 합성섬유의 기초원료인 P-X사업에 본격 진출하는 뜻깊은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97년 완공을 목표로 기존 공장부지내에 총투자비 2천여억원을 들여 연 60만톤의 P-X를 생산하는 공장건설에 착수하였으며, 이로써 앞으로 TPA 및 폴리프로필렌 사업 등 경쟁력있는 석유화학분야로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4. 소비자만족을 위한 품질차별화와 해외시장 개척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석유제품의 저공해화 및 품질 차별화에 앞장서온 쌍용정유는 올해에도 더욱 품질이 앞서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열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2월초에는 황 함량을 환경규제치의 절반 수준인 0.05% 이하로 감소시킨 초저유황 경유에 엔진세척 및 부식방지

등의 다목적 기능이 첨가된 「0.05슈퍼 디젤」을 개발하여 본격 시판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9월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의 함량을 환경기준치의 1/5인 1%이하로 감소시킨 Low Benzene 휘발유 「슈퍼크린 LB」를 개발·시판함으로써 정유업계의 품질경쟁을 주도해온 쌍용정유의 전통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후에도 차세대형 기술린엔진용 윤활유인 「슈퍼드래곤 SJ」를 개발·시판하는 등 소비자 및 환경을 생각하는 쌍용정유의 신제품 개발노력은 계속되었다.

한편 쌍용정유는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겨냥해서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지금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여 왔으며, 해외시장에서의 성공은 쌍용정유의 급속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에도 생산된 석유제품의 50% 정도를 꾸준히 수출하여 왔으며,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등·경유 등 경질유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공해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슈퍼크린 LB」를 출시한 이후 품질에 엄격한 일본의 정유회사들로부터도 주문이 쇄도하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품질고급화 의지와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어 신제품개발 실무자들의 어깨를 뿌듯하게 하였다.

5. 국가경제에도 한 몫

산업의 원동력인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과 고급윤활기유의 국산화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꾸준히 기여해온 쌍용정유는 수익성위주의 경영과 국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성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건실한 납세의 무 수행으로 국가재정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를 인정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결국 정확한 목표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경영전략 수립,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
눈 코 뜰새 없이 달려온
우리회사 전 임직원의
땀의 결실이었다.**

받아 올봄 조세의 날에는 김선동사장이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쾌거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주식배당을 30% 라는 상장사 최고수준의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외부고객만이 아니라 내부고객인 소액주주들에게도 나름대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6. 올해의 경험은 새해의 발전의 밑거름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결국 정확한 목표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경영전략 수립,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 눈 코 뜰새 없이 달려온 우리회사

전 임직원의 땀의 결실이었다.

잠깐 더듬어 본 쌍용정유 1년의 자취가 이렇게 영광과 보람으로만 맺어져 있는 것 같으나 또한 주위를 살펴보면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경제의 총체적인 침체와 맞물려 쌍용정유의 올해 경영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달성한 성과들이었기에 더욱 값진 것일지도 모른다.

해가 바뀌는 시점에서 잠시나마 지난 1년간의 영광을 반추해본 이자리가 더 고되고 힘든 싸움이 예상되는 새해를 자신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지를 굳게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악화된 경영환경은 새해에도 나아질 것 같지 않으며, 어쩌면 올해보다 더욱 힘겨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쌍용정유로서는 비용절감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전 임직원이 허리를 더욱 단단히 조여야 할 것이며, 정유업계 전체로는 공동으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협력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